

## 한국판 청소년 정서결핍 척도(K-ICU)의 타당화 연구

권 은 정	손 애 리	황 순 택*
충북대학교	한양대학병원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신경정신과	심리학과

정신병질은 대인관계, 정서, 행동의 세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는데, 그 중 정서적 특성이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냉담하고 비정서적인 정신병질적 정서특성을 CU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s)이라 하며, CU특질은 청소년의 품행문제 및 반사회성 성격장애, 범죄와 비행행동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CU특질을 측정하는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도구인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ICU)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 참가 청소년(N=346명)에게 이 척도와 함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청소년용 성격장애 진단검사 반사회성 소척도, JTCI의 기질 척도, 한국 청소년 성격검사의 불안, 비행문제, 과잉행동 소척도를 실시하였다. 한국어로 번안된 원척도 24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3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냉담성', '부주의/무신경', '감정표현 결여'의 3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세 요인의 문항 구성은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 각 하위요인은 전체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각 요인들 간에는 약하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준거타당도 검증 결과 한국판 ICU는 청소년용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반사회성 소척도, JTCI의 자극 추구 기질, 한국 청소년 성격검사의 비행 및 과잉행동 소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JTCI의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 기질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본 결과를 통해 24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ICU가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일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으며, 더 다양한 집단과 관련변인을 포함하는 추후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하고 확장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CU특질, 냉담성, 정신병질, 청소년 비행, 한국판 청소년 감정결핍 척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순택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성봉로 410  
Tel : 043-261-2187 / Fax : 043-271-1713 / E-mail : hstpsy@chungbuk.ac.kr

‘정신병질(Psychopathy)’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 연쇄살인범 또는 연쇄성폭행범의 특징으로 종종 언급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실제로 정신병질은 범죄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인변인이며, 서구에서는 범죄자 죄질의 심각성을 평가하거나 재범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일종의 성격 특질로서의 정신병질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닌 집단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집단과는 구별되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인과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더 심각하고 폭력적인 집단으로 분류된다(Blair, Peschardt, Budhani, Mitchell, & Pine, 2006; Hemphill, 2007; Patrick, 2007; Porter & Woodworth, 2006). 정신병질의 특징은 대인관계, 정서, 행동 측면에서 주로 논의된다. 정신병질자의 대인관계는 피상적, 자기중심적, 이기적, 기만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이들의 정서는 깊이가 없고 정서적 경험 및 표현이 결여되어 있으며 냉담하다. 또한 이들은 계획성이 없고 무책임하며 충동적이고 사회적으로 일탈된 행동을 일삼는다(Hare, 1996; Hare, Cooke, & Hart, 1999; Hart, Hare, & Harpur, 1992). 이러한 특징들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Hare, 1993; Vitale, Newman, Bates, Goodnight, Dodge, & Petti, 2005). 이러한 정신병질의 대인관계, 정서, 행동적 특징 중에서도 냉담하고 깊이가 없는 정서는 과거부터 성인의 정신병질을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질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Hare, 1993). 이러한 정서적 특징은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정신병질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며 청소년의 비행 및 재범 예측에도 중요하다(Cooke & Michie, 1997; Rutter, 2005). 정신병질의 이러한 정서적 특성은 Frick(1998a)에 의해 CU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s)이라는 용어로 명명되어 구성개념으로서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Frick(1998b)은 CU특질이 행동 억제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아동이 사회화에 잘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개인의 독특한 기질 유형이라고 보았다. 또한 불안과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하는 평생지속형 품행장애 청소년의 두드러진 정서적 특징이 바로 CU특질이라고 주장하였다

(Frick, 1998b). 최근의 많은 연구들(Dadds, Perry, Hawes, Merz, Riddell, Haines, Solak, & Abeygunawardane, 2006; Kimonis, Frick, Fazekas, & Loney, 2006; Pardini, Lochman, & Frick, 2003; Pardini, Lochman, & Powell, 2007)도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행동 문제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류된 청소년 집단을 통해 Frick(1998b)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들을 얻었다.

CU특질은 아동의 성격이나 정신병질에 대한 다른 측정치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경과를 보이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까지 이어진다(Blonigen, Hicks, Kruger, Patrick, & Iacono, 2006; Frick, Kimonis, Dandreaux, & Farrell, 2003; Munoz & Frick, 2007)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특질은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 성인기의 정신병질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아동의 행동 문제와 지능, 경제적 문제와 양육 등 심리사회적 위험 요소들을 통제한 경우에도 초기 청소년기의 CU특질은 성인기의 정신병질을 예측하였으며(Burke, Loeber, & Lahey, 2007; Lynam, Caspi, Moffitt, Loeber, & Stouthamer-Loeber, 2007), 기저선을 포함한 공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다른 연구(Moran et al., 2009)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의 품행·정서 문제, 향후 정신과적 문제와 CU특질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질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특성으로 인식됨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기에도 성인 정신병질과 유사한 특성들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Andershed, Kerr, Stattin, & Levander, 2002; Daderman & Kistiansson, 2004; Frick, 1998a; Frick, O'Brien, Wootton, & McBurnett, 1994; Lynam, 1997). 그 결과 성인이 나타내는 정신병질적 특성이 아동 및 청소년기부터 형성되며 연령에 따라 안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청소년기 정신병질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되었다(Ferrington, 2006; Lynam, 1997; Lynam & Gudonis, 2005; Vitale, et al., 2005).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기의 정신병질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정신병질적 대인관계, 정서, 행동 차원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인

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YPI)가 Andershed 등(2002)에 의해 개발되었고, Hare(1991)의 정신병질 진단도구(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를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PCL-YV (Psychopathy Checklist-Youth Version)가 개발되었다(Forth, Kosson, & Hare, 2003). 그 외에 PCL-R로 평가되는 정신병질적 특성을 문항 형식으로 바꾸어 만든 The Antisocial Process Screening Device(APSD)는 부모나 교사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평가하는 것(Frick & Hare, 2001)과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보고하는(Munoz & Frick, 2007) 두 유형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아동 및 청소년의 CU특질 측정에는 PCL-YV, YPI, APSD 등이 사용된다. 그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APSD이며, 부모-평정, 교사-평정, 자기보고식 유형들 중에서 자기보고식 유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Essau, Sasagawa, & Frick, 2006). 그러나 APSD는 정신병질의 여러 차원들을 측정하는 도구이지 CU특질에 초점을 맞춘 도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APSD에서 CU특질을 측정하는 문항은 3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 6개에 불과한데, 이는 점수의 범위 및 타당성의 제한, 특히 자기보고형의 경우 내적 일관성이 중간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Essau et al., 2006; Loney, Frick, Clements, Ellis, & Kerlin, 2003). PCL-YV, YPI(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등도 같은 이유로 CU특질을 명확히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PCL-YV를 통해 평가된 CU(Callous-Unemotional)특질과 APSD (Antisocial Process Screening Device)를 통해 개인이 스스로 보고한 CU특질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였다(Lee, Vincent, Hart, & Corrado, 2003).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개발한 것이 Frick(2003)의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ICU)이다. ICU는 아동 및 청소년의 CU특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APSD의 CU(Callousness-Unemotional)특질을 측정하는 문항의 일부에 바탕을 두고 심리측정적 한계를 보완하여 24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일반청소년 1,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Essau 등(2006)의 타당화 연구에서 ICU는 alpha계수 .77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으며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죄책감, 공감, 타인에 대한 냉담한 태도 등을 포함하는 냉담성(callousness) 요인, 일의 수행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조심성 및 세심함의 부족을 포함하는 부주의/무신경(uncaring) 요인, 그리고 감정표현의 부재를 포함하는 감정표현결여(unemotional) 요인이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 ICU 점수와 학교에서의 수행, 또래 관계, 가정에서의 의무 수행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YSR(Youth Self-Report)을 통한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와 CU(Callous-Unemotional)특질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을 때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안, 우울, 신경증, 위축 등 내재화문제는 ICU의 총점 및 냉담성 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공격적 행동, 비행 행동 등의 외현화문제는 ICU 총점 및 감정표현결여 요인을 제외한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 외 품행장애 증상과 반사회적 행동 또한 CU특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CU특질이 비행 및 품행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ICU를 통해 측정된 CU특질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범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ICU의 타당도 연구(Kimonis et al., 2008)에서도 ICU는 공격성 및 비행과 정적 상관을, 공감 및 긍정적 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Kimonis 등은 ICU 척도가 CU특질을 측정하고 반사회적 청소년 집단과 정신병질적 집단을 구별하는 도구로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최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ICU를 통해 측정된 CU특질과 성격특질, 정신병질적 특성, 공감, 친사회적 태도, 보상과 처벌에 대한 민감성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에서도 심리측정적 도구로서의 ICU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Roose, Bijttebier, Claes, Decoene, & Frick, 2010).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 가운데서도 CU특질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CU특질 수준이 낮은 아동들과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Barry et al., 2000; Frick et al., 1994; O'Brien & Frick, 1996). Barry 등

(2000)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와品行장애(Conduct Disorder; CD)를 가진 아동들을 CU특질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스릴(thrill)과 모험 추구 성향을 알아 보았다. 그 결과 CU특질 수준이 높은 아동이 유의하게 더 높은 스릴과 모험 추구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U특질 수준이 높은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행동 억제에 결손을 보이고 스릴(thrill)과 모험 추구 성향이 강하다(Frick et al., 1994)는 이전의 연구와도 일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청소년 비행 및 정신병질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에 의해 CU특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Beauchaine, 2003; Rutter, 2005) 그 측정도구의 개발, 관련 변인과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으며(강태신, 2009) CU특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더 드문 실정이다. 이희정과 이성철(2005)이 보호관찰 하에 있는 범죄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야기 과제를 통해 CU특질의 존재를 확인한 바 있으나, 직접적으로 CU특질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 이야기 과제를 제시하여 도덕적 정서를 평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CU특질을 추론하였기 때문에 CU특질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서 밝혔듯이 ICU는 청소년의 CU특질을 측정하고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도구로서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CU특질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U특질을 측정하는 도구인 ICU를 번안하고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참여자

충청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4~15세 청소년 346명(남 178, 여 168)을 대상으로 하였다.

## 측정도구

### 한국판 청소년 정서결핍 척도(Korean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K-ICU)

Frick(2003)이 개발한 ICU를 임상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과 임상심리전문가가 번안하였고 임상심리 전문가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임상심리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문항을 완성하였다. 문항 수는 24문항으로 전혀 아니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Essau 등(2006)의 타당도 연구에서는 Callousness 11문항, Uncaring 8문항, Unemotional 5문항으로 하위 요인이 구분되었다.

### 청소년용 성격장애 진단검사

DSM-IV에 정의되어 있는 각 성격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개발하고 손애리와 황순택(미출판)이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한 청소년용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반사회성 소척도를 사용하였다. 손애리와 황순택의 연구에서 문항 중 내적 합치도가 낮게 나타난 4문항을 제외한 후 나머지 15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서재삼과 황순택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70$ 이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는  $\alpha=.67$ 이었다.

### 기질 및 성격검사 청소년용(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는 청소년의 기질과 성격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Cloninger, Przybeck, Svrakic 및 Wetzel이 개발한 TCI(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를 청소년용으로 변환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국내에서는 독일어판 JTCI를 참고로 오현숙과 민병배(2004)가 표준화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질을 측정하는 4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생 규준집단의 기질 척도 신뢰도 계수는 자극추구에서 .72, 위험회피에

서 .81, 사회적 민감성에서 .63, 인내력에서 .70이었다.

### 한국 아동·청소년 성격검사(Korean Adolescent Personality Inventory for Self report)

황순택 등(2010)이 한국 아동인성 평정척도(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김지혜, 조선미, 홍창희, 황순택, 2006)의 부모평정용을 변환하여 개발하고 표준화한 자기보고용 성격검사로, 아동 및 청소년의 성격 병리, 부적응 문제 등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축형 검사의 임상척도 중 불안 7문항, 과잉행동 9문항, 비행문제 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아니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단축형 검사 개발 시 중학생 기준집단의 신뢰도 계수는 불안 소척도에서 .80, 과잉활동 소척도에서 .83, 비행문제 소척도에서 .75였다.

###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K-ICU(Korean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의 요인 구조 및 내적 합치도, 관련 변인과의 상관을 검증하기 위해 남녀 중학생 346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K-ICU와 청소년용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반사회성 성격장애 문항, 한국 아동·청소년 성격검사, JTCI를 포함한 질문지를 제작하여 청소년에게 실시하였다. 참가 청소년들은 검사자에게 설명을 듣고 검사에 동의하였으며 검사 실시에는 30-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무성의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자료들을 제외한 32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SPSS 12.0을 사용하여 원 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이 그대로 도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척도 및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 결 과

### 요인 분석

K-ICU의 요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SPSS에서 주축요인추출과 사각회전(direct oblmin)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고유값(eigenvalue) 1을 넘는 요인 6개가 추출되었는데, 원 척도의 타당도 연구(Essau et al., 2006; Kimonis et al., 2008)와 스크리 테스트(scree test) 결과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3요인 구조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의 수를 3개로 지정한 후 다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요인의 구조행렬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요인 1은 Essau 등(2006)의 연구에서 도출된 Callousness 요인의 문항과 일치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냉담성’으로 명명하였다(Eigen value = 3.742, 총 분산의 15.591%를 설명). 요인 2는 Essau 등(2006)의 연구와 유사하게 Uncaring 요인의 문항들이 주를 이룬 가운데 Essau 등(2006)의 연구에서 Callousness 요인으로 구성되었던 문항 한 개(“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에 대해 신경을 쓴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요인을 ‘부주의/무신경’으로 명명하였다(고유값 3.301, 총 분산의 설명량이 13.754%). 요인 3은 모두 5개 문항으로 감정 표현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감정표현 결여’로 명명하였다(고유값은 2.080이며 총 분산의 8.667%를 설명).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구조는 Essau 등(2006)과 Kimonis 등(2008)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 K-ICU의 신뢰도

K-ICU의 모든 문항을 투입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 .732$ 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다음으로 K-ICU에서 도출된 세 요인 각각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각각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냉담성 요인 10문항에서 .745, 부주의/무신경 요인 9문항은 .714, 감정표현 결여 요인 5문항에서 .670으로 나타났다.

ICU 내의 상관을 검증한 결과 총점과 각 요인은 높

표 1. K-ICU 문항의 요인구조(n=325)

문항	1	2	3
<b>냉담성</b>			
18. 다른 사람의 기분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651	.079	-.100
8. 나는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568	.210	-.028
15. 나는 매우 차갑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544	.075	.026
5. 나는 일을 잘 하려고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다.	.508	.107	.147
13. 나는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에 휘말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506	.016	.029
10. 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492	.030	-.029
2.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깊이 신경 쓰지 않는다.	.487	.198	.166
22.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어쩔 수 없다.	.418	.023	-.215
19. 내가 맞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332	-.085	-.140
23. 나는 내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다.	.244	-.111	-.002
<b>부주의/무신경</b>			
6. 나는 학교에서나 다른 일을 할 때 잘 하려고 신경을 쓴다.	.142	.630	.155
4.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110	.548	.235
1. 나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한다.	-.121	.526	.160
21.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145	.517	-.020
11. 나는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175	.446	-.023
24.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에 대해 신경을 쓴다.	.135	.424	-.092
17.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점을 쉽게 인정한다.	-.075	.413	.132
9. 나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을 한다.	-.249	.387	.244
14. 나는 무언가 잘못했을 때 기분이 상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228	.376	.008
<b>감정표현 결여</b>			
16. 나는 내 기분을 스스럼없이 표현한다.	-.326	.272	.724
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기분을 숨긴다.	.284	-.081	.629
3. 나는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324	-.015	.584
20. 나는 표현을 매우 잘 하고 감정적인 사람이다.	-.188	.380	.479
12.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쉽게 알아차린다.	-.092	.266	.342

은 상관을 보였으며(총점과 냉담성 요인  $r=.680$ , 총점과 부주의/무신경 요인  $r=.695$ , 총점과 감정표현 결여 요인  $r=.548$ , 각각  $p<.01$ ), 각 하위 요인 간의 상관은 냉담성 요인과 부주의/무신경 요인이  $r=.114(p<.05)$ , 부주의/무신경 요인과 감정표현의 결여 요인이  $r=.245(p<.01)$ 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냉담성 요인과 감정표현 결여 요인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

다( $r=.028$ ,  $p=n.s.$ ).

K-ICU의 총점과 각 요인의 평균점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K-ICU의 총점과 다른 하위 요인에서는 남녀 간 점수 차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냉담성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t=2.20$ ,  $p<.05$ ).

표 2. K-ICU의 원점수

	남(n=163)	여(n=162)	전체(n=325)
	M(SD)	M(SD)	M(SD)
냉담성(10문항)	8.09(4.85)	7.01(4.00)	7.55(4.48)
부주의/무신경(9문항)	11.09(3.79)	10.85(3.97)	10.97(3.88)
감정표현 결여(5문항)	7.91(2.65)	8.13(3.23)	8.02(2.95)
CU Total(24문항)	27.09(6.90)	25.99(7.76)	26.54(7.35)

준거 타당도

ICU를 통해 측정된 CU특질이 청소년의 비행 및 품행문제 등과 유의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Essau et al., 2006; Kimonis et al., 2008; Roose et al., 2010), 이와 관련한 변인들인 반사회성 성격장애, 기질, 불안, 비행행동, 과잉행동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평균점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용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반사회성 소척도는 31.44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JTCI의 자극추구, 위협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기질의 평균점수는 각각 19.13점, 20.72점, 15.36점, 13.43점이었다. KAP의 평균점수는 불안이 13.08, 과잉행동이 15.94, 비행문제가 12.86점을 나타냈다. JTCI로 측정된 기질 변인에는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극추구 기질과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자극추구 기

질에서  $t=-2.935$ ,  $p<.01$ ; 사회적 민감성 기질에서  $t=-4.708$ ,  $p<.001$ ).

ICU의 총점 및 하위요인과 관련 변인의 상관을 검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척도는 ICU 총점 및 냉담성 요인, 부주의/무신경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각각  $r=.493$ ,  $r=.478$ ,  $r=.379$ ,  $p<.01$ ) 감정표현 결여 요인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척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질과 ICU의 관련성을 보면, 자극추구 기질이 ICU 총점 및 냉담성 요인, 부주의/무신경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각각  $r=.279$ ,  $r=.314$ ,  $r=.266$ ,  $p<.01$ ) 감정표현 결여 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129$ ,  $p<.05$ ). 위협회피 기질은 ICU 총점과 냉담성 요인, 부주의-무신경 요인과 유의한 관련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감정표현 결여 요인과는 작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75$ ,  $p<.01$ ). 사회적 민감성 기질과 인내력 기질은

표 3. 관련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n=163)	여(n=162)	전체(n=325)
	M(SD)	M(SD)	M(SD)
반사회성성격장애	31.53(5.28)	31.35(5.79)	31.44(5.53)
JTCI자극추구	18.21(5.56)	20.06(5.82)	19.13(5.76)
JTCI보상회피	20.53(5.62)	20.92(6.81)	20.72(6.24)
JTCI사회적민감성	14.40(3.46)	16.33(3.90)	15.36(3.80)
JTCI인내력	13.49(3.21)	13.37(3.47)	13.43(3.34)
KAP불안	12.73(5.70)	13.43(6.56)	13.08(6.14)
KAP과잉행동	15.33(6.15)	16.57(6.63)	15.94(6.42)
KAP비행문제	12.84(5.19)	12.88(5.95)	12.86(5.57)

표 4. K-ICU, 반사회성성격장애검사, JTCI, KAP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5	.493**	.478**	.379**	.006	-							
6	.279**	.314**	.266**	-.129*	.606**	-						
7	.025	-.094	.021	.175**	.042	.011	-					
8	-.481**	-.309**	-.308**	-.326**	-.192**	-.005	-.066	-				
9	-.554**	-.308**	-.521**	-.230**	-.408**	-.338**	-.155**	.198**	-			
10	-.005	-.063	-.044	.142*	.168**	.146**	.795**	.001	-.130*	-		
11	.237**	.245**	.169**	-.003	.477**	.545**	.220**	-.025	-.345**	.408**	-	
12	.294**	.320**	.214**	-.032	.635**	.575**	.221**	-.018	-.322**	.433**	.700**	-

\*  $p < .05$ , \*\*  $p < .01$

주. 1 = K-ICU 총점, 2 = K-ICU 냉담성, 3 = K-ICU 부주의/무신경, 4 = K-ICU 감정표현 결여 5 = 청소년용 성격장애 진단검사 반사회성 소척도 총점, 6 = JTCI 자극추구 기질, 7 = JTCI 위험회피 기질, 8 = JTCI 사회적 민감성 기질, 9 = JTCI 인내력 기질, 10 = KAP 불안, 11 = KAP 과잉행동, 12 = KAP 비행문제

ICU의 총점 및 모든 하위 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KAP의 소척도 중 불안은 ICU 요인 중 감정표현 결여 요인과 작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r = -.142$ ,  $p < .05$ ) 다른 요인들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과잉행동과 비행문제 또한 반사회성 성격장애 척도와 마찬가지로 ICU 총점과 냉담성 요인, 부주의/무신경 요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감정표현 결여 요인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 정신병질의 대인관계, 정서, 행동적 측면 중 정서적 특질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을 국내 청소년에게 적용하기 위해 실시한 타당화 연구이다. 연구에서 ICU를 변안하고 중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주축요인분석과 사각회전을 사용하여 K-ICU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각 요인과 그에 포함된 문항들이 선행연구들(Essau et al., 2006; Kimonis et al., 2008)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신뢰도 검증 결과 K-ICU는 Frick(2003)이 개발한 원 척도와 동일하게 24문항 모두가 적정 수준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또한 Cronbach's  $\alpha = .670 - .745$ 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가장 낮은 신뢰도를 나타낸 요인은 감정표현 결여 요인으로, 다른 타당화 연구들(Essau et al., 2006; Kimonis et al., 2008)에서도 도출된 요인들 중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Kimonis 등(2008)은 5개라는 적은 문항 수가 낮은 신뢰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세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을 냉담성, 부주의/무신경, 감정표현 결여로 명명하였다. 냉담성은 타인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들이며, 부주의/무신경은 대인관계나 일의 수행에서 세심하지 못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감정표현 결여는 타인에게 감정표현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K-ICU 전체 척도와 요인 각각의 상관계수는  $r = .548 - .695$  범위였으며, 하위 요인 간의 상관 또한 약하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K-ICU 구성개념이 높은 내적 안정성을 가지며, 하위요인들이 한 척도 안



에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서로 중첩되지 않고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냉담성 요인과 감정표현 결여 요인은 유의한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다. 냉담성 요인의 문항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거나 타인에 대해 냉정한 태도와 관련한 것이 많고, 감정표현의 결여 요인의 문항들은 거의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태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K-ICU의 문항 중 24번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에 대해 신경을 쓴다’ 문항은 원칙도에서는 callousness(냉담성)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요인분석 결과 무관심-부주의 요인에 포함되었다. 번안된 우리말이 이중적인 의미를 띠게 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원 문항은 ‘I am concerned about the feelings of others’이고, 우리말로 번안된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에 대해 신경을 쓴다.’이다. 이 문장은 읽는 사람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떠한지 알아내려고 한다’, 또는 ‘기분을 알기 위해 노력한다’, 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알게 된 후 그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그 사람의 기분 변화에 자신이 영향을 받는다’ 라는 의미로 확대하는 것이다. 만일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한다면 원 문항이 의미하는 대로 냉담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의미의 부주의/무신경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ICU를 사용해 청소년의 CU특질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CU특질이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범죄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Fanti, Frick, Georgiou, 2009; Marsee & Frick, 2007; Stickle, Kirkpatrick, & Brush, 2009). 실제 범죄행위로 인해 구속 수감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보고한 CU특질은 공격성, 폭력 비행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Kimonis, Frick, Munoz, & Aucoin, 2007), CU특질은

또래 괴롭힘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Viding, Simmonds, Petrides, & Frederickson, 2009).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CU특질과 관련을 가질 것이라 예상되는 여러 척도들과의 상관을 통해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반사회성 성격장애 특성, 과잉행동, 비행문제가 CU특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CU특질이 청소년의 품행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Fanti et al., 2009; Marsee & Frick, 2007; Stickle et al., 2009; Kimonis et al., 2007)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Frick 등(1994)의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K-ICU를 통해 측정된 CU특질과 행동 억제 문제와 서로 관련을 가질 것인지를 JTCI의 기질 척도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TCI는 Cloninger가 제안한 세 가지 기질차원인 행동 활성화 체계와 행동 억제 체계, 행동 유지 체계를 토대로 만들어진 기질 측정 도구이다(오현숙, 민병배, 2004). 행동 활성화 체계는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이 활성화되는 기능을 조절하는 체계로, JTCI의 자극추구 기질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행동 억제 체계는 처벌이나 위협의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이 억제되는 기능을 조절하는 체계이며 JTCI의 위험회피 기질을 통해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행동 유지 체계란 이전에 보상된 행동이 지속적 강화 없이도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 기능을 조절하는 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JTCI의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 기질로 기술된다. CU특질이 낮은 특질 불안과 사회화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경향, 행동억제의 문제와 관련을 보이는 바(Frick, 1998b), 이러한 특징들이 JTCI의 높은 자극추구, 낮은 위험회피, 낮은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과 상관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JTCI의 네 가지 기질특성 중 높은 자극추구 기질과 낮은 위험회피 기질이 청소년의 범 죄, 반사회적 행동, 품행문제, 공격성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양재원, 노일석, 홍성도, 김지혜, 2005; 임진현, 2005; Luby, Svrakic, McCallum, Przybeck, & Cloninger, 1999; Rettew, Copeland, Stanger, & Hudziak, 2004; Ruchkin, Koposov,

Eisemann, Hagglof, 2001; Schmeck & Poustka, 2001). 이처럼 CU특질이 청소년의 품행 및 비행문제와 관련이 있고, 자극추구 기질 및 위험회피 기질이 청소년 범죄나 품행문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질을 준거 변인으로 하여 K-ICU와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검증 결과 K-ICU를 통해 측정된 CU특질은 기질 중 자극추구 기질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기질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청소년 비행 및 품행문제와 가장 강한 상관을 보이는 기질 변인은 자극추구 기질(양재원 등, 2005; 임진현, 2005; Luby et al., 1999; Rettew et al., 2004; Ruchkin et al., 2001; Schmeck & Poustka, 200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반사회성 성격장애 특성과 자극추구 기질은 .606의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CU특질과 기질의 관계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특성과 기질의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특성, 과잉행동, 비행문제는 사회적 민감성이나 인내력 기질보다 자극추구 기질과 더 높은 관련을 보인 반면, CU특질은 자극추구 기질보다는 사회적 민감성 기질, 인내력 기질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기존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품행문제가 주로 행동적인 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따라서 충동적이고 쉽게 흥분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자극추구 기질과 높은 상관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U특질은 그와 다르게 정신병질의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도구이기 때문에,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정서적으로 차가운 특성을 측정하는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나 성취를 위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게으른 특성을 나타내는 인내력 기질과 높은 상관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해야 하겠지만, 반사회적 성격과 CU특질이 기질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결과는 ICU 척도가 반사회적 청소년 집단과 정신병질적 청소년 집단을 구별하는 도구로 중요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 Kimonis 등(2008)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CU특질과 위험회피 기질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반사회성 성격장애 특성과 위험회피 기질 사이에도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시설에 수용되었거나 사법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다른 환경적 요인이나 품행문제의 수준에 따라 위험회피 기질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K-ICU의 감정표현 결여 요인과 준거 변인의 관련성은 K-ICU 총점, 냉담성 요인, 부주의-무신경 요인과 준거 변인의 관련성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감정표현 결여 요인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특성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극추구 기질과는 약하지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위험회피 기질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감정표현 결여 요인과 KAP 소척도와의 관련성 또한 K-ICU의 다른 요인들과 달랐는데, KAP의 불안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과잉활동 및 비행문제는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선행 연구(Essau et al, 2006)에서는 Unemotional 요인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KAP의 불안 소척도와 정적 상관이 나타나는 등 다소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문항 수가 적어 반응집단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또는 집단의 특성이나 측정도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감정표현 결여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불안을 잘 느끼고, 주변 환경에서 오는 자극이나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아예 차단하는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여러 연구에서 CU특질을 개인의 안정적인 내적 특성으로 간주하고 있으나(Burke et al., 2007; Loney, Butler, Lima, Counts, & Eckel, 2006; Lynam et al., 2007; Munoz & Frick, 2007) 그것이 곧 CU특질의 불변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U특질에 대한 4년, 10년의

종단연구(Frick, Kimonis et al., 2003; Lynam et al., 2007)에서는 CU특질이 높은 안정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연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낮은 CU특질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감소 수준은 아동이 보이는 품행 문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아동에 대한 부모 양육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CU특질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아동기 시절 CU특질의 존재 여부가 반드시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반사회적 성격이나 정신병질로까지 이어진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로 표본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일반 청소년들로, 연령이나 환경적 특성이 유사한 집단이다. 정신병질적 정서를 측정하는 척도에 대한 연구의 표본으로 삼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여러 연령 집단과 품행장애 청소년, 비행청소년, 소년범죄자 등과 같은 다양한 준거집단을 대상으로 본 척도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국내에서 타당화가 이루어진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병질적 특성에 대한 척도나 국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청소년 정신병질 척도를 함께 측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미 타당화가 이루어진 청소년 정신병질 척도를 사용한다면 ICU의 타당성을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에서 청소년의 비행, 범죄 등과 관련해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CU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s)의 측정도구인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Frick, 2003)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번안하고 타당화한 연구이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정신병질에 대한 연구(강태신, 2009; 광금주, 김연수, 2008; 김동민, 박현진, 김지훈, 2005; 이수정, 고선영, 이춘근, 2004; 이희정, 이성철, 2005 등)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주로 청소년 정신병질의 개념 정립, 발달적 관점에서의 이론 개관, 범죄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에 대한 추론 등이 그 주제가 되어 왔고,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병질적 정서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ICU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청소년의 정신병질적 정서 특성 척도를 타당화하는 노력은 비행 및 범죄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연구를 통해 한국판 ICU의 활용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태신 (2009). **청소년 싸이코패스 성향의 예측요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광금주, 김연수 (2008). 발달적 관점에서 본 정신병질: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71-89.
- 김동민, 박현진, 김지훈 (2005). 청소년 정신병질 특성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57-176.
- 서재삼, 황순택 (2006).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73-288.
- 손애리, 황순택 (2010).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청소년 적용 가능성**. 미출간.
- 양재원, 노일석, 홍성도, 김지혜 (2005). 기질 특성이 청소년기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44(3), 350-356.
- 오현숙, 민병배 (2004). **기질 및 성격검사 청소년용**. 서울: 마음사랑.
- 이수정, 고선영, 이춘근 (2004). 고위험 비행청소년들의 역기능적 정서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13.
- 이희정, 이성철 (2005). 보호관찰 초범과 재범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한국심리학회**

- 지: *발달*, 18(4), 51-67.
- 임진현 (2005).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기질과 자기개념 및 정서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순택, 김지혜, 안이환, 조선미, 한태희, 홍상황, 홍창희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성격검사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Andershed, H., Kerr, M., Stattin, H., & Levander, S. (2002). Psychopathic traits in non-referred youths: a new assessment tool. In E. Blaauw, & L. Sheridan. (Eds.), *Psychopaths: curr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131-158). The Hague: Elsevier.
- Barry, C. T., Frick, P. J., DeShazo, T. M., McCoy, M. G., Ellis, M., & Loney, B. R. (2000). The importance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for extending the concept of psychopathy to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2), 335-340.
- Beauchaine, T. P. (2003). Taxometrics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15, 501-527.
- Blair, R. J. R., Peschardt, K. S., Budhani, S., Mitchell, D. G. V., & Pine, D. S. (2006).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 262-275.
- Blonigen, D. M., Hicks, B. M., Kruger, R. F., Patrick, C. P., & Iacono, W. G. (2006). Continuity and change in psychopathic traits as measured via normal-range personality: a longitudinal-biometric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 85-95.
- Burke, J. D., Loeber, R., & Lahey, B. B. (2007). Adolescent conduct disorder and interpersonal callousness as predictors of psychopathy in young adult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 334-346.
- Cooke, D. J., & Michie, C. (1997). An item response theory evaluation of Hare's psychopathy checklist. *Psychological Assessment*, 9, 2-13.
- Dadds, M. R., Perry, Y., Hawes, D. J., Merz, S., Riddell, A. C., Haines, D. J., Solak, E., & Abeygunawardane, A. I. (2006). Attention to the eyes reverses fear-recognition deficits in child psychopath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9, 280-281.
- Daderman, A. M., & Kistiansson, M. (2004). Psychopathy-related personality traits in male juvenile delinquents: an application of a person-oriented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7(1), 45-64.
- Essau, C. A., Sasagawa, S., & Frick, P. J. (2006).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ssessment*, 13, 454-469.
- Fanti, K. A., Frick, P. J., & Georgiou, S. (2009). Linking callous-unemotional traits to instrumental and non-instrumental forms of aggressio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1(4), 285-298.
- Farrington, D. P. (2006). Family background and psychopathy. In C. J. Patrick (Ed.), *Handbook of psychopathy*. New York: Guilford Press.
- Forth, A. E., Kosson, D. S., & Hare, R. D. (2003). *The psychopathy checklist: youth version manual*.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Frick, P. J. (1998a). Callousness-unemotional traits and conduct problems: applying the two-factor model of psychopathy to children. In D. J. Cooke, A. E. Forth, & R. D. Hare (Eds.), *Psychopathy: theory,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society* (pp. 161-189).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 Frick, P. J. (1998b). *Conduct disorders and severe*

- antisocial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Frick, P. J. (2003). *The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Unpublished rating scale, The University of New Orleans.
- Frick, P. J., & Hare, R. D. (2001). *The antisocial process screening device (apsd)*.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Frick, P. J., Kimonis, E. R., Dandreaux, D. M., & Farrell, J. M. (2003). The 4 years stability of psychopathic traits in non-referred youth.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1*(6), 713-736.
- Frick, P. J., O'Brien, B., Wootton, J., & McBurnett, K. (1994). Psychopathy and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4), 700-707.
- Hare, R. D. (1993). *Without conscience: The disturbing world of the psychopaths among u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are, R. D. (1996). Psychopathy: A clinical construct whose time has co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25-54.
- Hare, R. D., Cooke, D. J., & Hart, S. D. (1999). Psychopathy and sad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T. Millon, P. H. Blaney, & R. D. Davis (Eds.), *Oxford textbook of psychopathology* (pp. 555-58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rt, S. D., Hare, R. D., & Harpur, T. J. (1992).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 an overview for researchers and clinicians. In J. C. Rosen, & P. McReynolds (Eds.), *Advances in psychological assessment, 8* (pp. 103-130). New York: Plenum.
- Hemphill, J. F. (2007).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 and recidivism: methodological issues and critically evaluating empirical evidence. In H. Herve and J. C. Yuille (Eds.), *The psychopath: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141-17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imonis, E. R., Frick, P. J., Fazekas, H., & Loney, B. R. (2006). Psychopathy, aggression, and the emotional processing of emotional stimuli in non-referred girls and boy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4*, 21-37.
- Kimonis, E. R., Frick, P. J., Munoz, L. C., & Aucoin, K. J. (2007). Can a laboratory measure of emotional processing enhance the statistical prediction of aggression and delinquency in detained adolescents with callous-unemotional trai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5), 773-785.
- Lee, Z., Vincent, G. M., Hart, S. D., & Corrado, R. R. (2003). The validity of the antisocial process screening device as a self-report measure of psychopathy in adolescent offender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1*, 771-786.
- Loney, B. R., Butler, M. A., Lima, E. N., Counts, C. A., & Eckel, L. A. (2006). The relation between salivary cortisol,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conduct problems in an adolescent non-referred sampl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 30-36.
- Loney, B. R., Frick, P. J., Clements, C. B., Ellis, M. L., & Kerlin, K. (2003). Callous-unemotional traits, impulsivity, and emotional processing in adolescents with antisocial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 66-80.
- Lynam, D. R. (1997). Pursuing the psychopath: capturing the fledgling psychopath in a nomological net. *Journal of Abnormal*

- Psychology*, 106(3), 425-438.
- Lynam, D. R., Caspi, A., Moffitt, T. E.,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2007). Longitudinal evidence that psychopathy scores in early adolescence predict adult psychopath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1), 155-165.
- Lynam, D. R., & Gudonis, L. (2005).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y.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 381-407.
- Marsee, M. A., & Frick, P. J. (2007). Exploring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orrelate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a sample of detaine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6), 969-981.
- Moran, P., Rowe, R., Flach, C., Briskman, J., Ford, T., Maughan, B., Scott, S., & Goodman, R. (2009). Predictive value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a large community sampl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8(11), 1079-1084.
- Munoz, L. C., & Frick, P. J. (2007). The reliability, stability, and predictive utility of the self-report version of the antisocial process screening devic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8(4), 299-312.
- O'Brien, B. S., & Frick, P. J. (1996). Reward dominance: associations with anxiety, conduct problems, and psychopathy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4, 223-240.
- Pardini, D. A., Lochman, J. E., & Frick, P. J. (2003).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social-cognitive processes in adjudicated youth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 364-371.
- Pardini, D. A., Lochman, J. E., & Powell, N. (2007). The development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re there shared or unique predi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 319-333.
- Patrick, C. J. (2007). Getting to the heart of psychopathy. In H. Herve & J. C. Yuille (Eds.), *The psychopath: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207-252.). Mahwah, NJ: Erlbaum.
- Porter, S., & Woodworth, M. (2006). Psychopathy and aggression. In C. J. Patrick (Ed.), *Handbook of psychopathy* (pp. 481-494.). New York: Guilford Press.
- Roose, A., Bijttebier, P., Claes, L., Decoene, S., & Frick, P. J. (2010). Assessing the affective features of psychopathy in adolescence: A further validation of the inventory of callous and unemotional traits. *Assessment*, 17(1), 44-57.
- Ruchkin, V. V., Kuposov, R. A., Eisemann, M., Hagglof, B. (2001). Conduct problems in russian adolescents : The role of personality and parental rearing. *European Child Adolesc Psychiatry*, 10, 19-27.
- Rutter, M. (2005). Commentary: What is the meaning and utility of the psychopathy concep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4), 499-503.
- Schmeck, K., & Poustka, F. (2001). Temperament and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Psychopathology*, 34, 159-163.
- Stickle, T. R., Kirkpatrick, N. M., & Brush, L. N. (2009).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ultiple risk-factor models for understanding aggressive behavior in antisocial youth. *Law and Human Behavior*, 33(6), 515-529.
- Viding, E., Simmonds, E., Petrides, K. V., & Frederickson, N. (2009). The contribution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conduct problems to bullying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4), 471-481.

Vitale, J. E., Newman, J. P., Bates, J. E., Goodnight, J., Dodge, K. A., & Petti, G. S. (2005). Deficient behavioral inhibition and anomalous selective atten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with psychopathic traits and

low-anxiety trai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4), 461-470.

원 고 접 수 일 : 2010. 08.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0. 10. 27.

게 재 결 정 일 : 2010. 11. 09.

## Validation study for Inventory of Korea Callous-Unemotional traits with Korean Adolescents

Eun-jeong Kwon<sup>1</sup> Ae-Ree Son<sup>2</sup> Soon-Taeg Hwang<sup>1</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Many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CU(Callous-Unemotional) traits foretell the juvenile delinquency problems and the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of adults. In this study, ICU(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 a self report evaluation scale which measures CU traits - has been translated into Korean language and validated by surveyi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CU, the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subtype of the adolescent version of the Korean Personality Disorders Test for Self Report, anxiety(ANX), hyperactivity(HPR), delinquency(DLQ) subtypes of Korea Adolescent Personality Inventory for Self Report, and JTCI(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have been carried out to 325 (male 163, female 162) students of age 14-15. Reliability and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n version of ICU and related factors have been examined using SPSS. The factor analysis has also been carried out. Cronbach's  $\alpha$  of Korean ICU was .732. As a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3 factors(callousness, uncaring, unemotional) have been drawn, which is almost same as the original version. ASPD of KPDT, Novelty Seeking of TCI, DLQ and HPR of KAPI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ICU. Reward Dependence and Persistence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ICU.

Korean ICU has been validated by examining the internal coherency of test and the correlation with related factors.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prove that CU traits is maintained stably for Korean adolescents by applying it to various age groups and conduct disorder or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and by longitudinal study.

*Key words* : CU traits, ICU, Callous, juvenile delinquency